

(2025 하계 태국 단기문화체험 설문조사)

1. 2025년 하계방학 태국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자매대학에서 제공된 태국어 강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학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언어    ② 수업 방식의 차이    ③ 수업환경    ④ 기타 :  
⑤ 기타: \_\_\_\_\_

4. 다른 학생에게 태국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하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기타 건의사항이나 남기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잊지 못할 나콘빠툼에서의 10일

☞ 작성요령 : A4 1장 이내로 자유서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바랍니다.

- 자기소개 (학과, 학번, 성명)
-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목적
-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망설이는 후배들이 있다면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1학번 서\*입니다. 평소에도 태국을 너무 사랑해서 여행으로 자주 방문했었는데 마침 국제교류원의 하계 단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실제 현지에 녹아들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감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정말 소중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신라빠꾼 대학교는 수도 방콕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인 나콘빠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심을 벗어나 진짜 태국 현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 태국어 수업부터 악기, 요리, 공예, 복싱, 마사지 등 다양한 태국 문화를 체험했으며, 유명 관광지인 아유타야와 칸차나부리를 방문하는 현장 학습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화 교류 일정 날에는 배운 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의 국가를 태국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정말 많은 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대만,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독일,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했으며, 신라빠꾼 대학의 어문 전공 학생들이 각 전공 언어 국가의 학생들을 맡아 도와주었습니다. 출신 국가는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걱정됐었는데, 대부분 영어로 대화하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걱정이 무색할 만큼 한순간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배울 점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감사하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 하계 태국 단기문화체험 설문조사)

1. 2025년 하계방학 태국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자매대학에서 제공된 태국어 강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학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언어    ② 수업 방식의 차이    ③ 수업환경    ④ 기타 :  
⑤ 기타: \_\_\_\_\_

4. 다른 학생에게 태국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하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기타 건의사항이나 남기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파견된 학생들을 만나 서로다른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일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해당학교에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은 뜻깊은 경험이었지만 중간중간 정확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어 방황하였었던 것만 개선만 된다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목 : 태국 단기연수를 다녀오고 느낀 것들

작성요령 : A4 1장 이내로 자유서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바랍니다.

- 자기소개 (학과, 학번, 성명)
-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목적
-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망설이는 후배들이 있다면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다양한 국제 문화 교류 경험을 쌓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교내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환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기에 실제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령 기 에 이 번 태 국 단 기 문 화 체 험 연 수 는 제 게 단 순 한 단 기 프 로 그 램 이 아 니 라 앞 으 로 제 대학 생활과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책이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언어의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의미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를 통해 태국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며 언어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문화적 배경이 의사소통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체험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장차 해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문화적 차이보다 공통점에서 오는 친밀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태국 학생들의 생활 방식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생활 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서로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교류란 단순히 다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공통된 가치를 발견해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학생들이 보여준 공동체적 태도와 배려심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으며, 앞으로 저 역시 다른 문화를 대할 때 더욱 열린 자세와 포용력을 갖추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제가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적극적인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처음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쉽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고 질문하며 함께 어울릴 때 비로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 이후 태국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을 묻거나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순간들이 결국 연수의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열고 다가가는 용기라는 점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참여해 보면, 그 두려움이 곧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기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환학생이나 장기 유학으로 이어지는 준비 단계이자 소중한 경험의 시작점입니다. 단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얻게 되는 문화적 통찰,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연은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됩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장차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자 하는 제 진로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단기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저는 이 경험이 저의 대학 생활과 진로 계획에 있어 하나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연수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얻게 해 준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2025 하계 태국 단기문화체험 설문조사)

1. 2025년 하계방학 태국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자매대학에서 제공된 태국어 강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⑤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학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① 언어    ② 수업 방식의 차이    ③ 수업환경    ④ 기타 :

⑤ 기타: \_\_\_\_\_

4. 다른 학생에게 태국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하겠습니까? 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기타 건의사항이나 남기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단기연수 보고서)

# 제목 : 2025 하계방학 태국 문화교류 단기연수 보고서

안녕하세요! 2025 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패션산업학과 윤\*경입니다. 제가 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언어능력의 향상이 아닌 전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든 만큼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태국어 수업, 태국 음식 만들기, 무예타이 배우기, 수공예 수업과 드라마 액티비티, 태국 전통악기 수업과 마사지까지 현지에서 여행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수업을 알차게 배울 수 있어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접해보았지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학생들과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지내고 놀며 태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도 자연스럽게 익히며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늘고 섞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모두 정이 너무 많이 들어 저 또한 많이 울었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프로그램에 얼마나 진정성있게 참여하냐에 따라서 얻어가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당부하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점들은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 친구들을 보면 본인 국가의 언어, 영어, 한중일어 혹은 태국어 등 보통 3개국어 이상씩 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교육학이나 태국어학과인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처럼 학과 제한없이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한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저도 2년정도 짧은 유학을 다녀온적이 있어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석해줬어서 언어가 자유로울수록 더 벽없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학생들과 만나고 저희는 저희 문화를 알려주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는데, 전통의상은 선택사항이었지만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미얀마 친구들이 전통의상을 다 챙겨와서 입는 걸 보니 저도 한복을 가져갈걸 후회를 많이 해서 여름용 가벼운 개량한복이나 얇은 옷을 챙겨가는 걸 추천드려요! 태국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을 너무 좋아하고 잘 다가오기 때문에 간식같은 경우도 넉넉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전세계 어디든 “우리나라 오면 연락해! 마중나갈게!”라고 말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의미있었고 헤어짐이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후배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